

●●● 강종성 (사)한국계란유통협회 유통위원장

## 생산-유통의 상생으로 채란업 발전시켜야



채란업의 발전과 더불어 신선한 계란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계란유통 상인이 지역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생산자와 연결끈을 맺고 있다. 소비자에게 건강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유통과정 중 큰 폭으로 벌어지는 난가 D/C로 인해 생산가 이하로 덤핑 처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4월에는 생산자들과 유통상인들이 40원에 가까이 벌어진 계란 D/C 가격을 절반으로 줄이는 노력도 기울여 왔다. 본고는 30여년동안 계란유통업에 몸담아 온 (사)한국계란유통협회 강종성 유통위원장을 만나 채란업계의 당면문제가 무엇인지 계란유통 현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 계란 유통 상인의 작은 꿈으로 시작

강종성 위원장은 소시적부터 계란유통업에 종사한 작은아버지의 영향으로 군 재대 후 '유통업을 할 수 있는 작은 내 가게를 만들자'는 꿈으로 계란유통을 시작했다. 유럽상해란 상호로 법인을 설립해 일일 200판의 계란유통을 시작했고, 28년째 되는 올해, 12개 농장으로부터 계란을 공급받

아 일일 20~30만개를 유통하면서 "신선하고 깨끗한 당진농장"의 이름으로 중간도매상, 식자재업체, 중소·대기업, 할인매장, 직판장으로 9대의 차량을 통해 매일같이 납품을 하면서 국내 유통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001년부터 (사)한국계란유통협회 유통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이러한 공로를 인

정반아 지난 2006년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실함을 바탕으로 국내 계란유통업계에 커다란 신망을 쌓았으며, 전국적 계란흐름과 시황을 꿰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현재 상황은 생산-유통인 모두의 난국

강 위원장은 채란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계란이 대형할인매장 등 미끼 상품으로 유통되면서 무너진 시장 상황을 지적한다.

과잉생산과 유통인들의 극심한 판로경쟁으로 인하여, 서로간의 출혈경쟁이 극에 달했고 이는 대형할인점을 위시한 유통업체들의 과도한 출혈 요구가 상시화되는 상황으로 번져, 대형마트에서 1,000~4,000편의 미끼상품을 요구할 때 농가에서는 체화된 계란을 생산가 이하로 덤핑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대군농장을 시발점으로 현재는 개미군단(영세업)까지 심심치 않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100원도 채 안되는 계란에서 37~39원 등 40원에 육박하는 D/C가 큰 폭으로 발생하면서 생산자는 물론 유통업자들까지 뼈아픈 고통을 겪기도 한다고 밝힌다.

### 생산-유통인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시장질서 회복

최근의 시세흐름은 시장상황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유통인들의 입소문에 의해 절반이 좌우되고 있다. 이는 난가 결정을 위한 구심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것이 채란업계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난가가 올라갈 때에는 지속 상승되어 최소 3~4번의 등락폭이 있어야 하지만 과잉생산으로 인해 사이클이 없어지면서 채란업계 전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강종성 위원장은 시장원리가 무너진 것은 결국 시세에도 영향을 끼친 것을 강조하며, '전통적으로 과잉생산의 수급조절 역할을 해왔던 도매상의



▲ 일일 20~30만개를 유통하면서 유통작업장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규격과 수량 등 매출자료를 데이터화 관리함.

영역이 줄어들고 소상공들이 유통흐름을 좌우하는 작금의 현실은 결국 생산자에게도 큰 문제 임을 전하며 채란인·도·소매인의 유통단계 및 관계의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채란업이 발전한다고 피력했다.

### 계란소비량 확대로 채란업 활성화 기대

채란업 발전을 위해 지역물류창고의 규모화·대형화된 계란도매시장의 건립으로 채란업계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대군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란 이력제 시스템을 일반 농가에서도 대폭 시행하여 소비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생산 및 판매가 필요하며, 그 외 유통상인을 등록·허가제 혹은, 신고제를 통해서라도 무임승차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한다.

생산자의 경우 환우를 최소화하여 품질 뿐 아니라 위생적으로 뛰어난 계란을 생산하여 등급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생산자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사육수수조절이 시급한 문제이지만, 완전영양식품 계란이 소비자들에게 좀 더 친근감있게 다가가고, 고급 먹거리로 인식되어 이를 위해 채란업계의 모든 생산·유통인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상생의 발판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전한다.

이를 통해 국민 1인당 소비량을 연간 250개 이상으로 늘려 선진국을 따라잡아야만 하고 결국, 산란계 임의자조금의 참여, 더 나아가 의무자조금 정책을 위한 채란업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정리 | 장성영 기자)